

2011 Autumn
Vol.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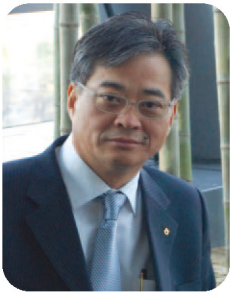
희망미소

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손경익
NH카드 사장

농협은 1961년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촌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농협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나눔경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NH채움 『러브트리카드』출시를 계기로, 보다 폭 넓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러브트리카드 기부금으로 소아암 어린이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지만, '소아암', '조혈모세포'와 같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 옆에서 가슴앓이하면서 묵묵히 함께 싸워야 하는 가족들... 오히려 제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꿈을 함께 나누다면'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그 시에 '꿈은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직원들도 소아암 어린이들이 미래의 파란 꿈을 꿀 수 있는 건강함을 되찾는 꿈을 함께 꾸겠습니다. 또한 NH카드 회원님들도 함께 꿈꿀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려 합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농협 및 NH카드는 미력하나마 적극적으로 성원할 것입니다. 소아암 어린이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소아암? 나를 변화시킨 녀석!

중학생이었던 저는 학교에선 늘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크고 건강해 보여서 어느 누구도 제가 크게 아플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게 하는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10월,

가족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는데 귀에서 '푹' 소리와 함께 어두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하였고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바로 무균실에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단 받은 후 시작된 삶... 척수검사, 골수검사, 항암, 주사, 검사, 수혈의 반복된 생활은 계속되었고, 힘들고 지친 나날, 아픔을 잊고자 툼툼이 점토로 동물들을 만들어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를 즐거움을 찾아 생활하였습니다. 치료 중 힘든 시간도 있었고, 고열로 몇 번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갔지만 이 고통은 '건강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 후 골수이식을 위해 무균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균실에서 이제 좀만 더 견디면 '병원생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장박동기 기계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며 장난치는 여유도 부렸습니다. 이식이 시작되고 내 골수를 모두 없애기 위한 전처치를 하면서 점점 정신이 몽롱해져갔고, 동생 골수를 이식하게 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힘들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식하는 날 동생의 골수가 내 몸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흥미해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운이 펄펄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기에는 구내염으로 음식도 못 먹고 맛도 못 느껴 구토와 배아픔의 나날이었지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래로 병원을 다니면서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복귀를 앞두고 재단에서 하는 미술치료를 통해 한 작품, 한 작품 만들면서 병실에서 동생들과 함께 종이접기도 하고 점토로 캐릭터를 만들어 침대에 두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미술치료를 하면서 나의 일생도 다시 생각해 보았고, 사갈의 수탑을 색연필로 그리면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생각과 열정도 느꼈습니다.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미술에 대한 소질을 발견했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휴가 때 찾아간 고향에서 고구마, 오이, 옥수수 수확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채소로 만든 자연밥상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오랜만에 하는 학교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좋아하는 미술도 하면서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혈레벌벌 학교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마냥 행복합니다.

.....
* 강훈이는 2008년 10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10년 3월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

소식지는 사랑을 싣고 ♡



20년 전, 그 때는 어떤 어린이가 치료 받고 있었을까? 지금 그 어린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만날 수는 있을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20년 전, 그! 어린이를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재단에서 처음 실시한 가족캠프 사진입니다. 한창 치료 중인 동그란 눈의 어린이가 유독 눈에 띄네요. 이 어린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소식지는 사랑을 싣고~' 그 어린이를 만나러 갑니다. 찾아간 곳은 그 어느 곳보다 활기가 넘친다는 방산시장의 한 가게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넓은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매상이 밀집된 곳에서 어린이와 닮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그 어린이는 그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옛된 동그란 눈의 어린이는 온화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우리는 그녀와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작은 공간에 진열된 색색의 상자들과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는 예쁜 식탁보와 리본들...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에서 그녀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다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게 된지는 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어린 시절 치료받을 때 생긴 '해낼거야!'라는 생각과 근성이 젊은 아가씨가 사장님이 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잠깐 20년 전 재단(당시 백혈병어

린이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아휴, 그 때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큰 힘이 되었던 거 같아요. 가족캠프에 가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크게 즐거웠지요. 그 때는 지방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작은 거처가 있으면 정말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꿈처럼 이야기했던 때예요."

지금도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틈틈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자원봉사, 후원 등)을 찾아 하고 있는 그녀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이나 그 때나 치료받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일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살짝 그녀에게 스무살 청년이 된 재단에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심리치료 서비스가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늘 사려깊고 묵묵하게 소아암 어린이를 응원해 주는 따뜻한 그녀와의 만남이 행복했습니다.

* 김현지 완치자는 1987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고, 1993년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



low tensions
like flowers
good where
body goes.

재단이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보이지 않는 많은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키다리 아저씨' 중 한 분, 손재용 후원자를 찾아갔습니다.

KCLF 빡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레스토랑이 깔끔하고 예뻐요. 어떻게 레스토랑을 경영하게 되셨나요?

손재용 저는 호텔 요리사로, 아내는 미용사로 거의 20년을 일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나누며 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았습니다. 신혼 때 정말 작은 전셋집에서 살면서 교통비 외의 수입 대부분을 저축했는데 IMF가 기회가 되었어요. 당시 금리가 높아서 우리가 했던 저축이 레스토랑 운영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또 그동안 만난 좋은 사람들 덕분에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KCLF 자수성가하셨네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찾기 어려운 분을 만나 뵈고 있네요. 재단 후원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손재용 나눔은 당연한 거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나눔을 돈을 벌어서 한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나눔은 생활의 일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계속 후원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후원하는 것을 직원들이 우연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직원들도 하나들 어디엔가 후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때 나눔도 바 이리스처럼 퍼지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와의 만남

'이웃과 더불어', '이웃과 나눔'이 각박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KCLF 아내 분은 후원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손재용 아내요?(웃음)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이 할걸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내는 저를 더 하라고 하면 했지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후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많이 다니는 따뜻한 사람이예요.

KCLF 다음에는 꼭 아내 분을 만나고 싶네요. 경영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손재용 '사람들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경영하자.'입니다.

KCLF 레스토랑 이름이 '세렌제' 인데 어떤 뜻일까요?

손재용 헝가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KCLF 정말 여기 오는 분들은 경영자의 따뜻함 때문에 행운을 많이 얻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손재용 이 사회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갖고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손재용 후원자와 함께 하면서, '나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영철학으로 이 사회를 따뜻하고 실맛나게 하는 손재용 후원자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손재용 후원자는 2001년부터 재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희망을 갖고 내일을 위해 전진



서유나

1989년생
2004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진단
2006년 치료종결
현재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 재학 중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아이들,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에 안주하며 다시 곤히 잠들곤 했던 아이들... 7년 전의 병원생활을 되돌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이다. 아니,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들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나를 건강하다고 자부할 만큼 잔병치레도 없었고, 식탐도 뛰어나고, 운동도 곧잘 했다. 그런데 '왜' 인지는 모르겠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의 어느 날부터인가 교복 셔츠의 목 부분이 잘 잡기지 않았고, 다리에도 붉은 반점들이 흩뿌려진 듯 생기기 시작했다.

내 팔의 드문드문 난 멍들을 보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로 설마하며 그 무서운 이름을 꺼냈던 기억도 어렵듯이 난다. 그리고 그 설마는 정말 내 발목을 잡았다.

백혈병? (사실 난 아직도 그 이름을 말하고 쓰는 것조차 두렵다.) 마냥 크고 무서운 병,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그래도 무작정 울고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 닳게 해주셨다던 의사선생님의 약속과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드라마 속의 백혈병 환자들처럼 세상 다 끝난 듯이 우울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행히도 나는 머지않아 다 나을 것이며, 다시 예전의 나로 혹은 더 나아진 나로 당당하고 멋있게 돌아갈 거라는 믿음과 함께 힘든 여정을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울지 않겠다고 내 다짐은 처음 3인실로 옮겨졌던 날, 같은 병실 안의 아이들을 보고 곧



바로 무너져 내렸다. 핏기 없이 핏색한 얼굴, 주사바늘 때문에 여기저기 푸르딩딩해진 손등과 발등, 뻘뻘 마른 앙상한 팔다리에 헐겨워 보이는 환자복을 입은 모습들을 보니 갑자기 겁이 난 것이다.

아마도 그 아이들을 본 순간, 그들의 아픈 얼굴과는 달리 크고 맑은 눈동자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떨 떨고 있던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참고 참았던 울컥함이 두려워하던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터져버렸다. 첫 날부터 평평 울어버렸으니... 그 때 그 병실의 동생들은 아마 나를 다 큰 울보 누나로 기억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 때부터 나는 처음 가졌던 그 희망을 위해 매 순간 자꾸만 나약해져 가는 내 자신과 싸워야만 했다. 그 과정 속에는 물론 아프고 슬프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잘 버티는데, 내가 약 먹기 싫다고, 주사 맞기 싫다고, 검사받기 싫다고 무작정 징징대는 건 가당치도 않았다.

가끔씩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아프거나 짜증날 때 평평 울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항상 옆에서 나를 지키는 엄마에게 마음에 없는 서운한 말들을 하며 되지도 않는 투정들을 고집할 때도 많았으며, 즐겁게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초라해진 내 모습에 분하고 억울해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곧 지나가버릴 두려움에 져버리고 나면 미래의 건강해진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해버린 나를 보고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당장은 내 몸과 마음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잘 견뎌낸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냥 슬픔에 빠져 멍하니 있으면 안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건강해질 그 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기로 했다.

작게나마 해보고는 싶었으나, 학교 다니면서 하기 힘들었던 것들... 사실 가장 독했던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나서는 연필조차 집을 수도 없었지만 일본어를 시작해보기도 했고, 한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혼자 그림도 그려보고, 일기도 쓰고, 내 미래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해본 것 같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은 마냥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다시 열심히 땀 나는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앞으로의 나의 현실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즈음,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 때 발병한 테라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졸업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래도 마냥 포기할 수는 없어서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용기를 내어, 중요한 시험 정도는 종종 학교에 가서 보고 오곤 했다. 그때마다 나를 반겨주던 따뜻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다른 전교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기꺼이 아픈 날 위해 눈물까지 흘려주셨던 나의 담임선생님께서도 학교를 설득하여, 결국 그 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나중에 나도 꼭 그 분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문제였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모습으로 새로운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 편하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건지를 결정해야 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걸 내게 있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과 이런 내 모습을 숨기고픈 도피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이미 잠정적으로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학교'를 마음에 담아 둔 채, 자꾸만 편한 곳에만 안주하며 도망가려는 내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또 다른 희망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후회 없이 잘 걸어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순간부터 희망해 왔던 '참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길목에 서 있다. 만약 그 때 내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웃고 있었을까? 마냥 두려워 보였던 그 길에서 나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누군가 지금껏 내가 했던 일들 중 가장 잘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난 그 순간 다시 학교를 택한 점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 때의 나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첫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던 점, 왜 하필 나일까 하며 신세한탄만 하지 않고 다시 건강해질 나를 위해 내 꿈을 놓지 않았던 점, 나 스스로를 믿고 사랑해준 점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이라는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나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있다.

물론 많이 아팠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난 결국 희망을 얻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나의 희망은 계속 빛날 거라 믿으며 내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살면서 이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 귀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 치료 중인 동생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게 희망을 주었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 또한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분들, 면발치에서 용기와 희망을 보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 순간을 꼭 잘 이겨내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서럽고, 때로는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이며,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어디에서건 희망은 스스로 구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픔을 잘 이겨낸 완치자다. 그 힘든 순간이 언제 끝날까 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나 또한 결국 그 전보다 훨씬 빛나고 소중한 나를 맞이했듯, 우리 친구들도 더 찬란하고 힘찬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가을엔 꼭!!!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7년 간의 소중한 만남, 기억 그리고 미술치료



2004년 봄 어느 날, 미술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위해 무균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학교를 쉬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집에 가지 못하는 친구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미술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선생님의 배려로 업무공간 한편에 있는 침대를 책상 삼아 미술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퇴원을 하였고 우리는 미술치료수업을 계속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재단에서 병원 근처 쉼터 안에 미술치료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재단 미술치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와의 인연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2회기의 미술치료를 하기로 했지만 한 회기를 남겨두고 친구는 영원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미술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소아암에 대해 잘 몰랐고,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도 미술치료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러나 매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를 하면서 소아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미술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미술치료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혹은 형제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사별가족을 위한 미술치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8명의 재단 미술치료사들이 각 지역에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를 통해 참 많은 인연들이 생겨났습니다. 4세~5세 어린이들부터 많게는 19세~20세 청년까지... 이 중에는 질병을 이겨내고 각자의 성장을 이룬 친구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의 치유과정과 성장과정을 지켜볼수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도 저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기억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2011년, 미술치료사로서 아이들을 만나 온지 벌써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미약하나마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조심스럽게 미술치료를 해왔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 안정희 미술치료팀장은 2004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만나 오고 있습니다. ※



깨끗한 옷 입고 아이들과 만나요!

1. 당신은 누구신가요?

영남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아이들의 생일 잔치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 최숙진입니다.

2. 어떻게 소아암 어린이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나요?

휴학을 하려던 무렵, 병원에서 아이들과 종이접기도 하고, 만들기도 같이 하며 봉사활동을 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사랑의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3. 자원봉사 활동 이야기 들려주세요!

처음 연락을 받고 갔을 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아서 갈아입고, 손도 씻고 준비는 했지만,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선뜻 다가가기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같이 있게 되면 아이들은 어느 때와 아이들과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궁금한 것도 많고, 씩씩하게 다가와서 멀뚱한 나에게도 먼저 말 걸어 주는 귀여운 보통 아이들이었습니다.

만들기 시간에 링거 때문에 손에 힘이 약한 친구들이

잘 따라 하지 못하면 먼저 도와주고 대신해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지켜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해내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곰돌이 액자 만들기를 했을 때, 분명 모두 같은 샘플을 보고 같은 설명을 듣고 만들었지만 결과는 하나도 같은 작품이 없었습니다. 귀가 크고, 색이 다르고 개구리가 된 친구도 있고... 각각 다른 아이들만큼 멋지고 특색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또 얼마 전, 병원 생일잔치에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친구가 나쁜 병마와 싸운다는 사실에 놀라고 안쓰러웠지만, 너무 귀엽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정말 의젓하고, 멋지고, 귀여워요.

아이들을 보면 비록 몸은 아프지만 누구보다 예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조금은 예쁜 아이들의 마음을 닮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4.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달에는 어떤 친구들이 올까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까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매일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

.....
* 최숙진 자원봉사자는 2010년 10월부터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의 관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 출판사 : 범문에듀케이션



>> 소개의 글

소아청소년암 완치자들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소아청소년암 완치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국내 현황을 개선하고 완치자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치 후 건강관리의 모든 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이제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에 어떻게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또한 제반 치료와 치치로 인한 각종 후기 합병증이 소아청소년암 장기생존자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진료체계가 미비한 국내 상황을 비판한다.

이어 환자들이 치료 종결 후 사회에 복귀하여 7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 대한 전인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comprehensive care)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책의 구성

1부 기관별

- 1장 중추신경계 / 2장 눈과 부속기 / 3장 두경부 / 4장 청력 / 5장 심혈관계 / 6장 호흡기계 / 7장 위장관 및 간 / 8장 비뇨기계 / 9장 근골격계 / 10장 내분비계 / 11장 대사증후군 / 12장 조혈모세포이식 / 13장 이차암 / 14장 심리사회적 측면 / 15장 장기 추적관리 / 16장 완치자 교육 / 17장 방법론

2부 질병별

- 1장 급성백혈병 / 2장 뇌종양 / 3장 악성림프종 / 4장 신경모세포종 / 5장 율름즈종양 / 6장 연조직육종 / 7장 골종양 / 8장 간종양 / 9장 망막모세포종 / 10장 생식세포종양 / 11장 조직구증식증

한사랑의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여기가 놀이동산이에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많은 분이 모아 준 기부 콩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의견을 모은 나들이 장소는 놀이동산! 들어서자마자 울려 퍼지는 음악과 정신없이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모두 어리벙벙해 있을 때, 막내 효산이가 회전목마를 지목했습니다. 너무나 서둘러 말을 하나씩 잡아타고 이때부터 심 없이 이것저것을 즐겼답니다.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낸 가족들은 치료를 잘받기 위한 힘을 한껏 충전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해피빈재단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아이들이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공방을 통째로 빌려 오직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시켜, 함께 케이크도 만들고 치킨도 먹는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툰 친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함께 해준 리바트 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

* 본 프로그램은 리바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7월의 특별한 생일잔치

7월 생일잔치! 생일을 맞이한 한 친구는 병실마다 들어가 “생일파티 한다!”를 외치며 직접 손님을 초대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환자복을 벗고 멋진 옷을 입어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은 또 소아암 완치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주인공의 멋진 생일잔치 매너와 소아암 완치자의 참여로 즐겁고 특별했던 7월의 생일잔치였습니다.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뮤지컬 ‘난타’



다양하고 신나는 두드림이 있는 공연 ‘난타’를 관람하였습니다. 가족나들이에 설레는 표정으로 나타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낸 표정에서 행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현대대상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햇살 맞은 풍경



여름내 내린 비, 그 많은 빨래를 실내에 건조하면서 ‘빨래 말리기 전쟁’을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햇살이 나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불과 젖은 우산을 마당에 퍼 일광욕을 시키는 중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비가 물러나고 반짝 해가 났던 늦여름 어느 날의 풍경입니다.

간접치료비

***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 기업은행노동조합** 각 월 15만원
 김다강(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정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태호(급성이중표현형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문찬휘(수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백건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송재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오현수(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
 이정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조재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서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서선원 후원자** 월 20만원
 김건욱(뇌종양/국립암센터)
- 양친의료재단** 월 20만원
 신화성(버킷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 LIG손해보험 새마음회** 월 20만원
 서동명(순직혈구빈혈/한양대학교병원)
- 익명 후원자** 월 15만원
 이다정(신경모세포종/영남대학교의료원)
- 코코인터내셔널** 각 월 20만원
 김서희(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태윤(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백병원)
 박현규(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이세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지우(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 일시 간접치료비**

- 우정사업본부** 각 100만원
 김도형(골육종/국립암센터)
 김민건(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김민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송지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안윤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오서윤(연부조직육종/세브란스병원)
 이승훈(급성림프모구백혈병/충남대학교병원)
 이준호(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전용욱(안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최윤서(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최한길(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홍유성(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 허명은 후원자** 115만원
 박소연(유잉육종/세브란스병원)
- 2011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박철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600만원
 (자정기탁 50만원×12개월)
- 익명 후원자** 각 50만원
 장영은(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김태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가발지원

하이모

김환일(생식세포종양/서울성모병원)
 윤재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승우(골육종/원자력병원)

재단

김민지(골육종/원자력병원)
 김민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김유정(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
 김은지(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변시량(수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서기원(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
 신유환(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안소연(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양승혁(호지킨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윤성용(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지은(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현주(종격동종양/삼성서울병원)
 정우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한승현(골육종/원자력병원)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1. 6. ~ 2011. 8.

소아암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병철 강현주 고대현 곽상훈 권민아 권호준 김나희 김대은 김도희 김동환 김병규 김보슬 김상윤 김영우 김영은 김은영 김민선 김지원 김진희 김태원 김태희 김형조 나희훈 남용우 노성권 박계남 박미애 박서연 박슬기 박예슬 박종석 박준수 박지환 박호찬 박희정 배국진 백우홍 손홍주 송봉근 신욱동 신채연 심수연 심종선 안재홍 염정선 오미순 오연진 오정민 윤금옥 이나연 이성애 이소연 이승희 이영주 이옥화 이우성 이은주 이은화 이정태 이종경 이주현 이준석 이진희 임규태 임애자 임재희 (주)장독마을 장선미 전향심 정우연 정원태 정유원 정주연 정진희 정현진 정현호 정형남 정혜옥 조민정 지은숙 천강용 최순운 한주연 허민희 현상민 현지는 황경민 황성희 황용문

일시후원

강영순 권영순 김근애 김영주 김화진 문귀순 박성민 박세용 박소은 박정희 배명환 상은희 송명훈 송지현 윤은영 이세현 이유림 이태훈 임은영 장진희 장진하 전주진 정재환 조성언 차다운 한수정 한희철 새마을상회 신민아맨클럽 원주구곡성당초등주일학교 태장초3-4반 JES ISLAND

후원물품

김동희 음식물건조기 김세림 부식류 김진희 도서 신민정 휴지 오태현 음료수 정수현 쌀 정은비 음료수 김현중퍼펙트 도서앨범 리바트 프로그램비 수오미 물티슈 엠블랙팬클럽A* 앨범 오꾸닭 수성점 치킨 외환은행나눔재단 우표 이정준모 옥수수 익명 감사

헌혈증(매)

김강훈(22) 김주용(7) 김중기(82) 김진용(4) 안예서(101) 이동원(2) 이은미(55) 이종일(10) 정성(7) 채성석(8) 한수정(1) f(x)팬사이트연합(128) 금호석유화학여수공장(70) 드림팩토리클럽(22) 빅뱅팬페이지Mpz(36) 신한은행(200) 에버테크노(8) 자울소프트(10) 하나님의교회(298) 케피코기술연구소시스템응용팀(13) 헌사모(45)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협 : 029-01-176943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KCLF 희망소식

www.kclf.org

호수의 나라 수오미



호수의 나라 수오미는 순둥이 물티슈 판매 시 100원을 적립한 금액과 임직원이 함께 나눔에 참여한 후원금을 모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둥이 물티슈 200개도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호수의 나라 수오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야놀자

주식회사 야놀자에서는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였습니다.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주식회사 야놀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금호석유화학 후원금 · 헌혈증 전달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은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과 헌혈증 1장당 일정금액을 매칭그랜트로 적립한 후원금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나눔을 준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은행 후원금 전달



우리은행은 임직원이 물건을 기부하여 콜센타지점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의 아름다운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김현중 팬클럽 '김현중퍼펙트'에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도서 11박스와 김현중의 첫 솔로앨범을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현중퍼펙트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빅뱅 팬페이지 빅즈(Vipz)에서는 빅뱅 데뷔 5주년을 맞아 팬들이 기부한 헌혈증 36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 에프엑스(f(x)) 팬 모임인 '에프엑스 2주년 팬사이트 연합'에서는 팬들이 기부한 헌혈증 128매를 에프엑스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 엠블랙(MBLAQ) 팬클럽인 'A+'에서는 엠블랙 신규 앨범 출시를 맞아 480장의 앨범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은행 헌혈증 전달

신한은행에서는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 200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진희 후원자 도서기증



재단의 후원자이자, 동화가 작가인 김진희 후원자가 MBC 창작동화 대상 수상작인 도서 『엄지』 14권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와 각 우체국 한사랑의집 미니도서관에 비치하여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후원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Maker를 만나다
이현경 학생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만남



장래희망이 외교관인 현경이의 '희망maker'는 외교관입니다. 현경이는 2009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이지만,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까지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인 외교관을 직접 만나고 싶다며 재단의 '희망maker를 만나다' 프로그램에 신청한 현경이는 7월 19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경이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을 직접 만나 외교관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경이는 이 날의 소감을 "희망maker를 만난 후에 제 꿈이 더 확실해 졌어요. 더 건강해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외교관이 될거예요."라고 전했습니다. 현경이의 '희망maker'가 되어준 외교통상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현경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1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2011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정된 40가족 모두 치료기간의 고됨을 잠깐이나마 털어내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활동이 앞으로 남은 치료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금호아시아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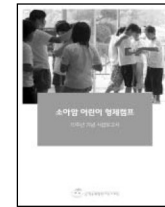
제11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경주한화리조트에서 제11회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31명의 어린이들은 형제의 질병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며, 그동안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10주년 기념 사업보고서 발간



본 재단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형제캠프를 정리하여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10주년 기념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니,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02) 766-7671

2011 '위대한 블로거' 발대식



6월 17일, 재단의 온라인 나눔 메신저인 '위대한 블로거'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해 올해 처음 10명의 '위대한 블로거'가 선발되었습니다. '위대한 블로거'들은 6월~12월까지 각자의 블로그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 소식, 소아암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재단 활동을 포스팅함으로써 온라인 나눔 활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앞으로 '위대한 블로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소아암 바로알기 캠페인

'소아암 완치를 희망의 80%' 벽화그리기



지난 7월~8월, 서울 지역 3곳의 어린이 집(어깨동무, 신길5동, 영이)에 '소아암 완치를 희망의 80%' 벽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벽화를 통해 소아암이 완치율 80%의 나을 수 있는 병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벽화제작에 도움을 준 완치자 외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벽화제작 의뢰 문의 : 02) 745-7671

2011 자기성장프로젝트



지난 6월 28일부터 2박 3일간 '2011 자기성장프로젝트'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마치고 사회를 향해 내딛을 준비를 하는 20대 열혈청년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암 치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를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며 서로를 북돋우는 아름다운 청년들과의 멋진 2박 3일이었습니다.

2011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

8월 19일,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 10명의 소아암 완치자에 대한 희망장학금(각 300만원) 전달이 있었습니다. 완치자 가족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참석하여 완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본 사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리치료 지원사업 안내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와 형제 그리고 부모님들을 돕고자 재단에서는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1. 대상

- 1)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결 후 5년 이내의 소아암, 재생불량빈혈 환아 및 가족
- 2) 소아암, 재생불량빈혈 환아 사별 가족
- 3) 미술치료는 5세 이상, 놀이치료는 2세 이상부터 가능

2. 치료장소

1) 재단소속 심리치료사 진행

- 희망미소 소아암센터 (서울 종로구 명륜동)
- 전남 우체국한사랑의집 (전남 화순군 화순읍)
- 대구 우체국한사랑의집 (대구 중구 동인동)
- 부산 우체국한사랑의집 (부산 서구 동대신동)
- 대전 치료실 (대전광역시 중구 탄방동)

2) 재단 연계 치료실

- 심리상담연구소 동그라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해오름 심리발달센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3. 신청 및 문의

- 1) 서울, 경기, 충청 지역 : 02) 766-7671
- 2) 전남 : 061) 375-7671
- 3) 대구 : 053) 253-7671
- 4) 부산 : 051) 244-7677

* 놀이치료는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만 진행됩니다.

* 사별 가족 심리치료는 재단 소속 심리치료사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마/음/풍/경



광태: 갈 때는 대부분 혼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 때는 아닙니다. 평생가도 진짜 친구 한명 사귀기 어렵다고 했나요? 우리는 진짜 친구를 11명이나 사귀고 왔습니다.

유민: 앞으로 한 발짝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해낼 수 있어요. 파이팅!

-2011 자기성장프로젝트 참가자 후기 中-

2011년 가을호는  한국증권금융 에서 제작지원 하였습니다.

발행인/오연천 편집인/서선원 발행처/(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02)766-7671(대) 팩스/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